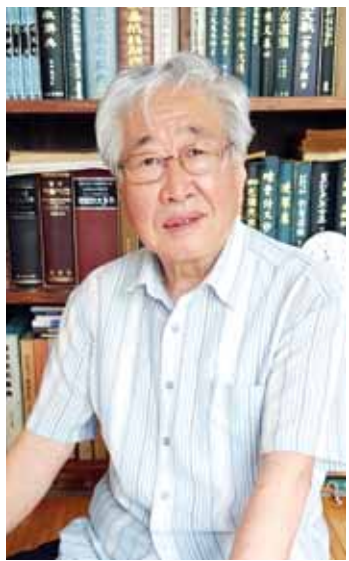


“루브르 명화 접한후 한국화 색채 입히기 시도”



‘산’

금봉 박행보 화백 ‘50년 예술세계’ 인터뷰

70여년 전 진도 울돌목 근처에 살던 11세 소년은 집에 놓여 있던 미산 허형의 병풍 작품을 좋아했다. 산수화에 그려진 선들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소년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여러차례 선들을 따라 그리며 수묵 매력에 빠져들었다. “선은 동양화의 생명”을 신조로 삼아 온 금봉 박행보(81) 화백이다.

진도군은 지난 15일 윤림산방 내에 금봉미술관을 개관했다. 박 화백이 지난해 작품 109점을 기증하며 이뤄진 일이다. 8월28일까지 ‘금봉의 채묵화’전을 열고 있는 광주 북구 시화마을을 금봉미술관과 함께 박 화백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두번째 미술관이다. 지난 23일 박 화백을 만나 고향에 본인 미술관이 생긴 소감과 50년 예술세계를 들어봤다.

“동양화 생명은 선...한국화도 항상 새로운 시도해야”

“허백련·손재형·위계도, 3명의 스승에 가르침 받아”

작품 109점 기증... 고향 진도 윤림산방에 미술관 개관
광주 시화마을을 미술관에서 8월28일까지 ‘채묵화’전도



최근 금봉미술관이 개관한 진도 윤림산방.

“41살 때 광주로 이사왔으나 인생 절반을 고향에서 살았네요. 제가 태어난 근대면 신동리는 울돌목하고 가까웠어요. 파도소리가 꼭 물이 끓는 소리처럼 들리던 곳이었죠. 바다 근처였지만 들녘도 있고 낮은 산들도 있었어요. 그때 추억들이 지금도 꿈에 나와요. 제 작품 속 풍경들은 어렸을 적 기억에서 바탕으로 그려진 게 많아요. 고향에 제 호를 딴 미술관이 생겨 더욱 뜻 깊네요.”

박 화백은 대가로 불리기까지 크나큰 가르침을 준 스승 3명을 만났다. 의재 허백련, 소전 손재형, 만취 위계도 선생이다. 동네 서당에서 한문과 서예를 익혔던 박 화백은 조금은 늦었다 싶은 25살 무렵 본격적으로 예술활동을 시작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이 됐어요. 어렸을 적 꿈인 한국화가 되고 싶었죠. 무작정 의재 선생을 찾아 충실현으로 갔어요.”

약 40살 위인 고(故) 허백련(1891~1977) 화백은 박 화백의 고모 아들, 즉 사촌형이었다.

“기본 지식도 없고 뭘 모르니 묵묵히 그림만 그렸지요. 하루는 의재 선생이 ‘넌 소같이 그림만 그리냐. 말 좀 해라’고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밑에서 작품을 대하는 마음, 붓 터치, 구상, 구도 등을 터득했어요. 일정 수준에 오르지 혼자서 공부하기 위해 내려왔죠. 스승 그림에 너무 빠지면 창의력이 없어지거든요.”

시화를 즐겨그렸던 박 화백은 서예가 부족하다고 느껴 먼 친척인 고(故) 소전 손재형 선생을 찾아간다. 소전 선생은 화제(畫題)를 내려주고 여백이나 구도 잡는 법을 알려줬다.

40대 후반에는 화순에 거주하던 만취 위계도(1926~1990) 선생 문하에서 한국화 정신 밑바탕이 되는 한학을 배우기도

했다.

큰 스승들을 사사하며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던 박 화백 작품이 한차례 도약을 한 건 1983년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였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개인초대전에 참여하며 약 한달간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서양 명화를 많이 접했다.

“파리 방문 때 본 서양화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대담하고 사실적이었고 특히 큰 크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또 화려한 색채가 눈에 띄더라고요. 귀국하고 한국화에 색채를 입히는 작업을 시도했죠.”

박 화백 작품은 서양 인상파 작품을 보듯 밝은 색감과 향토적 정서가 어우러지며 정감어린 분위기를 연출한다. 산 능선이나 소나무 줄기 등은 굵직한 선으로 그려 기개를 표현하고 초록색 등으로 화폭을 채우며 화사한 느낌을 자아낸다.

물론 처음엔 종이 선택부터 쉽지 않았다. 화선지를 쓰면 번지는 느낌이 좋지만 오래 보존되지 않았고 한지(다종이)를 쓰자니 무거운 질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현재는 주제에 따라 종이 질감도 작품 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 화백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했다. 지난해에는 풍경화에 한글 모음을 넣은 ‘세종의 얼’을 그리기도 했다. 오는 10월에는 시화전을 열 계획이다. 약 40여년 전부터 써왔던 한시를 보여줄 생각이다.

“큰 스승들이 말 한마디로 큰 가르침을 주듯 선 몇개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한국화가 어렵다고 붓을 놓는 후배들이 많은데 꾸준히 그림을 그리면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있겠죠. 그게 화가가 가는 길이예요.”

문의 광주 시화마을을 금봉미술관 062-269-9883, 진도 윤림산방 061-543-008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롯데갤러리
창작 지원
배수민 개인전
‘일상의 삽화’

7월 7일까지



▶TV정글

배수민 작가가 ‘일상의 삽화’를 주제로 광주롯데갤러리에서 7월7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롯데갤러리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창작지원전이다. 배 작가 작품은 일반 회화가 아닌 반부조 형식을 띤다. 흙으로 인물이나 풍경의 빛을 뒤 석고로 이용해 틀을 만들고 합성수지를 부어 굳힌다. 여기에 시트지를 붙여 회화와 입체작품 느낌이 동시에 나는 독창적 기법을 사용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TV, 피아노, 집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을 표현했다. 물질주의와 성과 중심

현대사회를 꼬집는다.

작품 ‘TV정글’에서는 무성한 일사구에 어지럽게 쌓여 있는 모니터들을 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 홍수 속에 무분별한 수용을 강요당하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엿보인다. 또 ‘달동네’는 화려한 꽃무늬 그릇 위에 어지럽게 전선들이 얽힌 동네가 놓여있다. 각 집들이 고래등 같은 기와를 얹고 있는 모습은 허세와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진다.

배씨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2013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1-1807./김용희기자 kimyh@

‘김원중의 달거리’ 6월 공연

오늘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지홀

‘김원중의 달거리’ 6월 공연이 27일 오후 7시30분 사직공원에 자리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지홀(옛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린다.

2003년 시작해 올해로 14번째로 중간 휴식기간을 빼고 꼬박 9년을 이어온 ‘김원중의 달거리’는 올해부터 장소를 옮겨 진행하고 있다.

6월 공연 주제는 ‘이사’다. 강원원 여민동락 공동체 대표가 사회를 맡는 이번 공연에서는 가수 김원중과 스티니마 밴드(정은주·조성우·박우진·송기정), 아카펠라(최원서·홍지수·한지은·김주호), ‘우물안개구리(봉봉·라떼양·소결),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악을 창조해나가는 ‘프로젝트양상련’이 함께 한다. 또 광주음악장작소 인큐베이팅 뮤지션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



김원중 사진

치고 있는 밴드 ‘루버스타’이 흥겨운 노래를 선사한다.

이번 달 초대 손님인 ‘섬진강 시인’ 김용택씨다. 최근 고향인 전북 임실군 덕치면 천매 마을로 ‘이사’한 시인은 서재와 고향 이야기, 정년퇴임 후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 정착한 문학 공간 ‘김용택의 작은 학교’ 소식을 들려준다.

입장료는 따로 없으며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정성을 보태면 된다.

김원중 달거리 www.kimwonjoong.com.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대학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 ECO
29년

www.yhb.co.kr

YHB 이동식 에어컨 |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PTB7000 | PTB5000 | PTB-W5000(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프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응접실,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산서버실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 고온 및 습기에 강력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업
특별가 공급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탈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운영점: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062-952-6633 | 인사공관: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정동)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shh@yhb.co.kr / ecob400@hanmail.net

전북의 랜드마크호텔
마지막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전주 한옥마을 라마다 @encore 호텔
RAMADA JEONJU @encore

10년 수익보장

실투자 6천만원 | 월수익 100만원

계약서 발행 2분만에 완판신화!!

1899-8735 NAVER 라마다 전주 검색

2017년 명품의 가치가 증명됩니다